**인도 사두 썬다싱의 명상 5(#201~250)**



201.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파괴하여 신의 불씨마저 파괴(존재 자체가 완전

소멸되어버리는 것)할 만큼 저 자신을 끝까지 훼손할 수는 없다. 창조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창조주도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창조주가 그것을 완전히 파괴되도록

놓아둘 수 있다면 그것을 지어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파괴할 수도 없다.

202.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기에 그분은 모든 도덕의 기본이며 생명이 되시기도 한다.

하나님 없는 도덕생활은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나 돌멩이와 같아서 차갑고 생명이 없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깨뜨리지 않는 것만이 진리요 선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203

204. 진정한 영적 아름다움은 한없는 사랑과 찬미와 선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피조물에

임재 하시는데 하나님의 간섭 자체가 모든 형태의 자연계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연계의 아름다움은 내적이며 잠재한 영적 아름다움의 반영이나 그림이다. 모든

자연의 모습은 그 어떤 심적 상황에 상응하는 것이며 그 심적 상황은 자연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함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꽃이나 과실, 산, 호수, 시, 산문, 미술, 음악 또는 뜻 있는 활동 등 이 모든 아름다움에

속하는 것은 참과 선의 표현이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잠들고 억압된 충동에 닿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선과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그 진가를

음미할 능력을 갖는 한계에서만 그런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수성이 있는 자들에 그 영감이

앙양되도록 도움을 준다.

205. 도덕과 아름다움과의 관계는 근본적인 것으로 진리는 양자의 원천이기에 양자는 그

속에 진리가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아름다움은 생명이 있는 것에나 없는

것에나 존재하기에 이것이 다른 피조물보다 속성이 뛰어난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글픈 일이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선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진리가 살고 있다.

206.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볼 수도 없다. 육체의 눈은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볼 수 있으나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려면 영에 의하여 새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그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며 낙원이 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207. 주님은 유다가 어떠한 종류의 인간이고 또 그가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을지라도 그를 호되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지옥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 자신

속에 고통의 상황을 만들어낸 상태를 의미한다. 지옥은 어떤 장소가 아닌 이유는 그곳이

장소라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옥에도 임재하여 계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에 이는

있을 수 없다. 지옥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208.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나 하늘 나라인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로 하늘 나라

역시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상황이 괴로울지라도 그는 하늘 나라 속에

있음을 지각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주위 상황을 초월하기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209. 지옥도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자체 속에 있다. 그가 아무리

외면적으로 평안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죄 속에 있다면 그의 마음은 지옥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하늘 나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인 것이다. 이는 하늘 나라나 지옥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210.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다. 또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고 고난도 없는 나라이며

끝없는 행복과 기쁨의 상태인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참

신자는 상황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것이다.

211.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이 없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생물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여지는 혈액 순환이나 호흡에서 볼 수 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피조물의 운행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공기나 물, 지구, 태양, 별 등 창조주의 목적 속에 계속 불변하는

질서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212. 이브를 타락시킨 뱀은 지금도 손발이 없는 채 얼마나 기어다니고 있는가. 이와 같이

사단은 대의 명분을 잃어 그 힘을 빼앗긴 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그는 이미 손발을

잃었으므로 자신이 아무리 공포스럽거나 또는 달콤한 몸짓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해를 가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기셨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의 커다란 몸짓에 정신을 잃고 만다.

213. 어느 가난한 프랑스의 조각가가 저가 만든 조각품이 춥고 습기 찬 까닭에 파손될

것을 우려하여 자기가 덮고 있던 모포를 둘러 조각품을 보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자신은 얼어죽고 조각품은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손수 열정으로

하는 일이나 생명 없는 것에는 그 생애를 바치면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제 목숨을 아끼고 있다.

214. 소금 덩어리는 녹지 않고는 맛을 낼 수 없고 산 속의 눈도 녹지 않고는 메마른 평야를

적실 수 없다. 우리 인간도 의의 태양에 의하여 자기 부정과 희생으로 연단되지 않는다면

영적 기갈을 멎게 할 수 없으며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다. 고난과 유혹을 겪지 않고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위해 일할 수 없으며 영적 진보도 이룰 수 없다.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유혹을 받지 않는 자는 짐승이거나 하나님 그 어느 쪽에

해당한다. 새는 날개를 움직이지만 역으로 날개 역시 새를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때 십자가는 그를 보호하여 최후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215.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남을 돕는 것은 나 자신을 돕는 것이고 남을 해하는 것이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법칙이다. 이 봉사의 법칙이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황금율이다.

216. 옛 사람들은 오늘날의 미개한 야만인과 같았다. 그들은 영적 욕구를 의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목적 의식만을 가져 하나님 대신 해, 달, 별 등의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었다. 히브리

민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민족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없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의 요구나 이익을 원하고 악을 두려워하는데서 보이는 것을 형상화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 후 저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제물과 희생을 바쳤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선

또는 악의 영과 조상의 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들의 안계가 넓어짐에 따라 영과

육, 원망과 욕구 전부를 만족시킬 영적 실재자를 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은 저들의 영적

요구와 수용력에 따라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 분이 예수시다.

217. 옛 사람과 지금의 사람 사이에는 생활 방법의 차이가 있듯이 사고의 차이도 있다.

인간 본래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았으나 그 욕구의 수단은 달라졌다. 신은 바로 이 부분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점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점점 더 뚜렷한

계시를 인간에 주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옛적보다 지금은 더 많은 선과 악의 혼란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기에 이는 곧 풍족한 지성과

그러나 더 부패한 인간의 심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으

로부터 예전의 방법과는 달리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의 수용량의 발달에 따라 더 진보된

계시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 옛날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러나 진리는 실존자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국민이 나타나도 실존은

그대로 존속한다.

218. 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앙 경험이나 지식으로 신의 실존을 이해하기에 남의 것이

합해져야 더 온전한 실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실존의 모습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여러 진리 중에 한 부분으로 제한이 되어 각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매료되어 다른 진리는 하찮게 취급되어 버림을 깨닫지 못한다.

한 진리는 그 근본에 있어서 항상 동일하나 각 사람의 상태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여러 사람이 각기 여러 색깔의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은 여러 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그들은 각자 보이는 대로 그

사물의 색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각자가 자신의 이성으로 신앙을 바라볼 때는 각자의

성질 여하에 따라 여러 빛깔과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그것의 원래 모습은 위로부터

참 빛이 비췰 때에야 비로소 그 형태는 어둠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219. 처음에는 우리가 멀리서 사물을 보듯 작고 어렴풋이 보여서 그 진정한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참고 한 발자국씩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아주 가까이서

사물을 똑똑히 보듯 이해가 증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처음에

비해 많이 진보된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멀리서 본 사물을 표현하느라 진리를 잘못

인식한 채 주장하는 어리석음의 때가 있었다.

220. 사과나무를 본적이 없고 오직 씨만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작은 씨 속에서

그렇게 큰 사과가 열리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종자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되면

자라서 숨어있던 참 성질이 나타나 완전에 도달한다. 신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처음에는

숨겨져 있기에 모든 일에 불분명하나 점차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자라 그 속에 숨은

나라의 비밀이 겉으로 나타나는 생활에까지 자라난다.

221. 나무는 공간을 향하여 자라지만 중력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혜나 이해력 등은 세상이라는 육체 속에 갇혀있기에

한계가 있으나 이 육체를 벗는 영의 세계에서는 무한대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보다 저곳은 더욱 뛰어나고 완전에 도달케 되는 것이다.

222. 다른 사람을 떠나 고독 속에 홀로 활동하고 있는 사상가 중에는 종종 이미 그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극히 국한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극히 변화가 많은 박물과 같은 곳이어서 그 물건을 본 자마다 서로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는 그 지적 시력에 결함이 있어서 영적 경험의 깊은

체험이 없는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자기의 사상으로 진리를 색칠하여 그릇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 모두 목표로 삼는 실존은 한 가지이다.

223. 육체의 감각이나 영혼의 지각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 양자 모두 영혼과 외부와의

통역자로 활동하는 것이다. 과자의 단맛이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것같이 감각이 느끼는

것도 감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 몸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닌 이유는 두뇌와

신경 계통은 그 자체가 사상이나 이상을 지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관이라

부르는 이 기관의 활동은 다만 영혼의 도구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사상은 손발이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변하게 한다.

224.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속 사람과

의식의 세계가 몸과 두뇌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초월한 이상의 것은 아니고 깊이 사색하면 알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직각을 통하여 깊은 사상이 문득 마음에 느껴질 때가 있다.

이는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배워서 가진 것도 아니다. 또 감각을 통해서 오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다.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와

접촉하고 있어 그 빛이 비록 우리 속에서 보거나 의식하지 못해도 속 사람에게 비친

것이다. 어떤 진리는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의 내적 지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스며든다.

이는 경험으로서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희미한 거울로서 보고 있다.

225. 개미와 벌은 저들 작은 세계 속에서는 부지런하고 영리한 종족이다. 그러나 저들의

세계를 넘을 때 더 우수한 동물과 인간을 본다. 저들은 겨우 작은 저들의 척도만을 가지고

남의 생활과 성질을 잴 수 있을 뿐이다. 이같이 우리도 영계의 최고 영적 존재들과 비하면

하등 차원 속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개미를 완전히 알지 못하듯 저들도 우리를 완전히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저들의 세계를 완전히 아신다.

226. 생물과 무생물이 창조되기 전에 공간이 있었다. 우주가 만약 멸망해도 이 공간은

짙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가 멸망하고 공간만 비며 짙어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물질이 그 자체의 힘으로 공간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생명 있는 조직체가

생명 없는 물질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주의 질서와 구성을 발견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무한한 실존자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유형

무형의 양자를 창조하고 이것을 공간 중에 충만케 한 것이다.

227. 신 밖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주가 만약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주는 피조물이어야

한다. 신이 존재물을 창조하였다면 그때 신 안에 한 변화가 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이 가운데 발견된다. 즉 우주가

존재하도록 출생하기 전에 신의 지식 중에 존재하였다. 외적으로 존재하거나 지식 중에

존재하거나 그에게는 한 가지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객관적으로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한 편으로는 그에게서 나와 그 안에 있고 영구히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 계속 그로부터 유지되기 때문이다.

228. 하나님의 영이 물 표면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무수한 피조물의 종족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 같이 하여 더욱 주의 영은 무한한 공간 중에 사람의 영혼의 위를 날개로서

덮으셨다. 신만이 위대하고 영광된 자신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아신다.

229. 신은 창조자이나 악의 본질은 악의 힘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신은 모든 영혼의

창조주이시나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성질은 그들의 자유의지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신은

죄와 악을 짓지 않으셨다. 신은 다만 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뿐이다.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서 악한 성질과 영적 병을 영원히 제거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온전케 하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죄의 뿌리가 제거될 때 모든 피조물에게서 악의 결과는 소멸되고 다만

슬펐던 경험의 회상이 장래 생활에 죄에 대한 큰 경계를 생각게 할 뿐이다. 무엇이나 신의

성질과 속성에 거스르는 자는 신의 지배 하에 영구히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 종국에

선으로 변화되거나 소멸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된다.

230. 사람들은 항상 과실, 꽃, 냇물, 호수, 산등과 같은 자연의 미를 보며 애착을 가질 줄은

알지만 그 배후의 창조주를 발견하고 느끼지는 못한다. 우주가 이같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 원천인 신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가 주신 선물이 이같이

달콤하고 매력적이라면 그의 임재는 그 얼마나 즐겁겠는가.

231. 잔잔한 수면에 물결이 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비친 얼굴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없는

것같이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물결이 잔잔해지기까지 영혼의 진상을 볼 수 없다.

고요한 묵상 중에 자신의 무력함과 죄성을 느낄 수 있다.

232. 마음이 고요하고 세상 혼란에서 떨어져 있으면 지남철이 북극에 끌리듯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끌리어 그에게 향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성정은 무한한 사랑과 성결에 영향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 치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없다.

233.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모든 종교는 의식과 교훈에 기초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영원히 살아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그 토대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써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그 자신이 저들과 늘 함께 있고 그 안에 있고

그들에 의하여 그의 사업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나는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외에 어디 있겠는가. 오직 신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은 오늘날까지 그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후에도

일하시면서 만사 만물에 계실 것을 우리는 안다.

234. 그리스도는 단 6시간 뿐 아니라 전 생애를 십자가 위에 있었다. 만약 청결한 사람에게

불결한 물과 때는 견딜 수 없고 선인에게 악인과의 교제는 몇 분간이라도 견디기 어렵다면

하물며 거룩한 이가 33년 동안 죄인과 함께 있는 생활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죄 많은 인간에게는 이 수난의 고통을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결이 이해된다면 신의 놀랄만한 사랑 즉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 수 있고 그가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235. 그리스도의 고통은 특히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받으신 신의 고통이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관계와 결합에 의하여 신 안에 살고 있다. 신은 그가 창조한 자와

산 결합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고통의 감각을 지으신 신이 자기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난이었다.

236. 영원 전부터 보이지 않던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죄인을 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이 고통이요 죽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237.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가지 세계가 여기 모여 있었다. 곧 모든 나라와 여러

지방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로 함께 모여 마치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함께 모여

서서 자신들의 죄의 입증자가 된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거기 함께 있어 그들의

죄가 심판 당하는 것을 증거자로 보고 있었다.

238.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 육체는 상하였으나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죄도 흠도 없기에 죽음을

정복한 후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신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받은

그 상처는 영광에 들어간 그 영체에도 영광스런 흔적으로 남아있고 구속받은 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의 한없는 사랑을 상기케 한다.

239. 신은 영이지만 영 뿐 아니라 생명 없는 물질도 창조하셨다. 신이 그 본성에 관계없는

물질을 만드셨다고 해도 신이 그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신이 영이므로 영이 아닌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면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육을 가진 몸을 만들어 이것을 영광있는

영체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240. 우리는 깨기 위하여 잠드는 것 같이 부활하기 위해 죽는다. 밤이 만물을 덮을 때

피곤과 무기력 중에 우리는 잠들지만 아침에는 상쾌함에 넘쳐 일어난다. 이같이 우리는

쇠약과 부패 중에 죽으나

생명과 영광 중에 부활하여 죽음도 죄도 없는 생명과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241. 사람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주도 육체를 입는 것은 그리

어렵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에게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신이 육체를 입은 것이 무엇이 불평의 대상이 되겠는가.

242. 기독 신자의 힘은 신과의 교제에서 나온다. 이것이 영적 양식이다. 보상을 바라는

것만으로는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없다. 인간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힘으로는 신의 완전에

이를 수 없기에 우리의 신앙은 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 우리를 도우신다.

243. 신의 속성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과의 교제를 즐겨 원하는 요구를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하신다. 이는 맛있는 음식의 맛이 그 물건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맛을 보는 사람을 위한 것과 같다. 신은 사람과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으므로 실재를 지각하는 힘과 신을 즐겨하는 능력까지도 사람에게 구비하여 주셨다.

이것이 영적 지각이다. 이 영적 지각은 사실과 허위,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시금석으로 양심

속에 넣어져 있다. 인간은 이것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으나 신의 은총으로 깨

어날 때 그는 자신의 일상 경험 속에 신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 이 경험이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철학과 증거로 그를 설득하려 해도 그의 사상은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논리와 철학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실재의

지식이 마음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좋은 맛을 알기 위해 필요한 식별력은 책 속에 있지

않고 혀끝의 맛의 실재에 있기 때문이다.

244. 히말라야 산 중에서 벌거벗은 채 구멍에서 사는 한 들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과자를 먹어본 일이 없고 본 적도 없었다. 그가 과자 한 개를 받고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고 있다가 먹어보고는 놀라며 기뻐했다. 맛보기 전에는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게

관계가 없었으나 이 때도 좋아하는 맛의 감각을 느끼는 혀는 그에게 있었다. 과자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나 그 맛의 성질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는 이유는 그 맛을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실존은 저들에 떠나 있는 상태이지만 신의 실재를 지각하는 힘은 그에게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245. 사람이 신의 실재를 부정하는 것은 죄로 인해 그 지각이 죽은 까닭이다. 그러나

회개하여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다.

이런 후에도 벙어리와 같이 그 기쁜 상태를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생활과 행동이 하나님의

실재를 계속 증거하며 그 맛을 누리는 것이다.

246. 로마 시대에 사람들은 맹수와 죄수와 싸우게 하는 잔인함으로 그 마음이 물들어

있었다. 이 때 기독 신자로 테레 마커스라 하는 은자가 있었다. 그는 수난자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바 이 야만적인 행위를 종식시키려 하다가 성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죽음은 그 당시 하찮은 것이었으나 후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그 잔인한 풍습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 신자가 가진 놀라운 힘인 것이다.

247. 지식은 상상과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나 참된 사실(경험)에는 근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때로 하늘에서 오는 것 같으나 또 지옥의 반사일 수도 있다. 이 지식은 때로 사람의

오해와 착각에 의하여 곤란을 당하게도 한다. 이성과 지식은 때로 성서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한 편으로는 성령의 계시로 된 성서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대개 껍질을 자세히 조사한다.

예를 들면 문제와 시일에 대하여, 사건과 저자의 특색을 조사하고 파악하며 정작 중심 핵이

되는 실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에 서있는 자는 언제 누가 복음서를

썼는가 하는 점등에는 관심이 없고 실존과 친하는 것에만 애정을 둔다. 이 진리의 증거는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이나 논리적일 필요는 없고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에

정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 진리는 낡고 새로운 것이 없이 예전부터 영원한 까닭이다.

248. 일을 하는 노동자의 먹는 것은 쌀 우유 야채 같은 단순한 것이므로 저는 항상

건강하지만 상등 요리 식사를 하고 사무소와 서재에 잠겨있는 사람은 소화 불량과 비만에

걸리기 쉽다. 이와 같이 단순한 신앙의 사람은 단순한 영의 식물을 먹는다. 그들은 이성과

지식보다는 성령에 의지해 영적 직관에 의해 신앙을 유지한다. 이성과 지식은 매우

유혹적이고 매력이 넘치기에 쉽게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기 쉬운 듯 보이지만 이로

인해 영은 쇠태하고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 신앙을 유지하게 되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말씀을 아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요 신앙에 힘이 되지만 그 지식이 선과

결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가리는데

쓰이게 되어 결국은 독이 되어버린다.

249. 우리는 성경의 적용을 너무도 단편적으로 하기에 때로 실수를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만일 탕자가 직접 아버지께 갔다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것도 중간의 중재자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는 겉으로는 맞는 듯

보이나 사실은 부분적으로 껍데기만 옳을 뿐 그 내용물은 틀린 것이다. 성경의 한 말씀

속에는 무수히 깊은 뜻이 있는데 그 껍데기만 보고 또 부분적으로만 보고 그 의미의

진정한 뜻을 놓치고 잘못 적용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다.

탕자는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는 자이기에 중재자를 경험한 자와 같다. 비록 그의 생활이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다. 이런 자는

중재자가 이미 그 마음 속에 있기에 그도 역시 중재자에 의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자라면 새로운 경험으로 중재자를 만나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결국 양자 어느 것이든 중재자 없이 아버지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250.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사도들은 성경의 주요 사항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더욱 뛰어난 해석을 덧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단순하고

지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문체의 형식이나

첨가도 없이 그대로 기록하였다.

우리도 이것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단순한 직관에 의해 읽는 법을 배우고 지식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